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토요일—저녁 집회)

메시지 6

앞장서서 몸을 알고

몸의 원칙들을 지킴

성경: 롬 12:4-5, 고전 12:12, 23-27, 엡 1:22-23, 4:4, 16

I.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은 앞장서서 몸을 알아야 한다—롬 12:4-5, 엡 1:22-23, 4:4-6, 16.

A.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엡 1:17-23.

1. 가장 큰 문제는 몸을 모르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엡 4:4, 16.
2.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우리가 몸을 본 정도에 달려 있다—행 22:10, 26:18-19.

B.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몸을 알아야 한다—요일 5:11-12, 골 3:4, 2:19, 롬 8:2, 6, 10-11, 12:4-5.

1.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요일 5:11-12, 골 3:4, 1:18, 2:19.

- a.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다.
- b.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이 생명 안에서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다—엡 5:30.

2. 생명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이다—요일 2:12-14.

- a. 몸을 알고 몸의 실재를 접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진보해야 한다—고전 3:1-2, 14:20.
- b. 영적인 생명에서의 넷째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알 수 있다—엡 4:12-13, 15-16.
- c. 몸을 알고 몸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해야 한다—갈 2:20, 5:24, 마 16:24.

(1)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우리 자신 안에서 살며 우리의 타고난 능력 안에서 봉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몸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는 몸을 알 수 없다.

(2) 오직 육체가 처리되고 자아가 버려지고 타고난 조성이 파쇄될 때에만, 우리는 몸의 실재를 만질 수 있다—고전 12:12, 엡 4:4-6.

3. 몸을 아는 것은 개인주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주의자들이다—고전 12:14-22.

4. 우리가 몸을 안다는 증거들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과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과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고전 12:18.

5.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교회, 곧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 ... 형제자매들을 도와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장로대회, 236쪽)

- C. 우리는 실행 안에서 몸을 알아야 한다—고전 12:20, 27, 15:58.
1. 지방 교회는 특정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표현이다—고전 1:2, 10:32하, 12:12-13, 20, 27.
 - a. 우주적인 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방 교회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이 된다—롬 12:4-5, 16:1.
 - b.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엡 4:4, 계 1:4, 11.
 - c. 모든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몸의 일부, 곧 몸의 지방적인 한 표현이다—고전 1:2, 12:27.
 2. 우리가 생명과 실행 안에서 몸을 안다면, 우리의 고려에서 몸이 첫째일 것이고 지방 교회들은 둘째일 것이다—롬 12:4-5, 16:1, 4, 16.

II. 장로들과 인도자들은 앞장서서 몸의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롬 12:4-5, 고전 12:12-13, 엡 4:4-6.

- A. 몸은 하나이다—롬 12:4-5.
1. 몸은 오직 하나 안에서만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다—엡 4:3-4.
 2.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이다—요 17:21, 23.
 3. 하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엡 4:1-3.
- B.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몸 안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전 12:12, 골 3:10-11.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창 2:22-23, 엡 5:23-32.
 2.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믿는 이들 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골 1:18, 2:19, 3:4, 10-11, 15.
 3.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단체적인 한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이다—고전 12:12.
- C. 몸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엡 1:22-23.
1.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되는 한 몸을 필요로 하신다—엡 1:22-23.
 2.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것이다—롬 12:5.
- D. 십자가의 일은 몸으로 완결되고 우리를 몸 안으로 안내한다—엡 2:16.
1. 십자가는 우리를 몸으로 인도하고 몸의 영역 안에서 작용한다.
 2. 자아는 몸의 원수이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로 철저히 처리될 때에만, 우리는 몸의 생명을 만지고 몸을 아는데 이를 수 있다—마 16:24-25, 롬 8:13, 12:4-5.
- E.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이시다—골 1:18, 2:19, 엡 1:22, 4:15.
1.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은 몸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골 1:18, 2:19.
 2.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든지 모든 것은 반드시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 F.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의 실재이다—고전 1:9, 12:13, 27.
1. 신성한 교통은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고 모든 지체들을 통과하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다. 실지적인 면에서의 몸은 교통 안에 있다—요일 1:3, 계 22:1.
 2. 교통은 우리를 고르게 하고, 조절하며, 조화시키고, 연합시킨다—고전 12:24.
- G.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한 최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전 12:23-27.
1.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반드시 몸을 합당하게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2.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몸과 몸의 건축을 관심해야 한다—엡 4:16, 고전 12:23-27.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몸을 앎

왜 우리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몸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는가? 이는 여기에 언급된 몸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몸은 우리 각 사람 안의 생명이며 우리와 연합되신 그리스도로 형성된다.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한다. 오직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처리되고,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여,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설 때에야 이 몸의 생명의 실재를 만지게 되고 몸을 알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각 ‘지체’에게 속한 생명인가 아니면 ‘몸’에 속한 생명인가? 성경과 우리의 체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는 하나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임을 증언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한 생명을 공유한다. 몸의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같은 생명, 즉 온몸의 생명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귀가 잘려나가지 않는 한, 귀는 눈과 코와 온몸을 통과하여 흐르는 같은 피를 나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몸에 연결되거나 몸과 교통하게 되면, 그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 되고 몸의 생명은 그 지체의 생명이 된다. 그 지체는 다른 지체를 떠날 수 없고, 다른 지체도 그 지체를 떠날 수 없다. 이는 그 지체와 다른 지체들 속에 있는 생명이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몸 안의 생명은 구분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이 생명은 우리를 함께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며, 더 정확히 강조하여 말하자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의 어려움을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 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자신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며 타고난 능력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몸의 생명은 나타날 길이 없으며, 우리는 몸을 알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 살수록 몸의 부축의 필요를 더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자아의 의견으로 행한다면, 교회가 떠받쳐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우리가 타고난 능력으로 봉사한다면 지체들의 동역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오직 우리 육체가 처리되고, 자아의 의견이 부서지고, 타고난 생명이 파쇄된 후에야 우리 안의 생명은 우리가 몸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독립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가 모든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고 연합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고 함께 연합되는 체험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가 몸에 관해 조금 알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이다.

한 면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혼 생명을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한 면으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몸을 알아야 하며, 몸을 알고 몸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혼 생명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관점에서든지 몸을 인식하는 관점에서든지 우리 모두는 먼저 앞의 세 단계, 곧 육체와 자아와 혼 생명에서 벗어남을 통과해야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몸을 아는 것은 말하고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다. 몸을 아는 것은 많은 체험을 거친 결과이다. 이 모든 체험들을 통과할 때 마침내 몸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곳을 방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간 여행을 하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여 여행의 목표물을 보게 된다. 몸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가 몸을 알고 체험 가운데서 몸의 실재를 접촉하고자 한다면, 얼마 동안 전진해 나아가서 영적 생활에서 경사진 곳을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일소하는 체험에서 시작하여 죄와 세상과 양심을 처리하는 체험을 통과하고, 부지런히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한 공과씩 배울 때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특히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 한다. 오직 우리가 영적 생명의 처음 세 단계를 체험하고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될 때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아는 데 이르게 된다.

우리가 몸을 아는 증거

몸을 아는 일이 이렇게 실지적인 일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직 몸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최소한 세 방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일 수 없음

몸을 아는 것에 대한 첫째 증거는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일곱 가지 항목들,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생명과 교통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고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몸을 알고 이 일곱 가지 사항에 포함된 하나를 깨닫는다면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몸을 알기 전에는 개인주의자요 개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의 생활과 행위와 일과 봉사가 모두 개인주의적이다. 외적으로는 그가 형제들과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실지적인 동역이나 함께 짜여짐은 없다. 그가 생명 안에서 더 깊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로 몸을 알게 될 때에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체적인 것이며, 몸의 교통을 떠나서는 전진할 수 없고, 지체들과의 동역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에게 실지적인 문제가 된다. 교회생활 안에서 그는 결코 혼자서 봉사하지 못한다.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를 느낀다. 크고 중요한 행사와 일에서 형제자매들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지체들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는 형제자매들과 동역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으며, 교회의 부축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짜여져 한 몸이 되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인주의적인 이들은 몸을 모르는 이들이며, 몸을 진실로 아는 이들은 결코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

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함

몸을 아는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몸을 알게 된 사람은 매우 실지적으로 몸 안에서 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몸 안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사람이 몸을 알고 나서 갖는 이러한 분별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그가 주님 안에서 갖는 교통의 깊이에 기인한다. 우리가 주님과 갖는 교통은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 비례하며 영적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네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깊이를 더하게 된다. 교통의 깊이는 생명의 체험의 진보에 따라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주님 안에서 교통의 깊이가 다른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할 때, 더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은 더 얕은 체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 교통을 나눌 수 있지만 그 교통은 후자의 체험에 제한을 받는다. 만일 이 교통이 어떤 수준을 넘어 더 깊어진다면, 이 교통은 후자에게 조화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더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 더 얕은 체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도, 더 얕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람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영적 교통의 커다란 원칙이다.

주 안에서 깊은 사람들은 얕은 사람들을 알 수 있어도 주 안에서 얕은 사람들은 깊은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원칙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단계까지 인도되고 이 단계에서 깊은 교통을 갖는다면, 우리는 교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 단계에까지 인도되었는지 또는 몸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몸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권위를 인식함

몸을 아는 세 번째 증거는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이 몸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람이 권위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권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을 모른다. 몸을 아는 일과 권위를 인식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다. 권위를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증거인 개인주의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연관이 있다. 사람이 권위를 인식하게 되면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권위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면, 그는 다만 자신이 아직도 개인주의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면 된다. 그가 여전히 개인주의자로 살며, 다른 이와 동역하지 않고서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권위도 모르고 몸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는 오직 몸 안에서와 동역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되어 있다면 권위에 관한 한 그 지체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몸을 원하시고 이 몸의 지체 된 우리가 혼자서는 전진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면(이것은 일단 우리가 혼자가 되면 몸에서 분리되기 때문임) 우리는 권위를 인식하고 몸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모든 형제자매들과 동역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권위가 무엇인가? 권위는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공과를 배운 이들은 모두 몸에 대한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만족한 태도로 자신의 순서를 따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겸손이나 자만과는 상관이 없다.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절차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권위를 알고 몸을 아는데, 이는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 몸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을 아는 이 문제는 권위를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의 순서를 모른다면,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자신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처음 세 단계에서 우리가 진지하고 철저히 각종 처리를 통과한다면, 특히 육체, 자아의 의견, 타고난 조성을 처리한다면,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순서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과 봉사 안

에 몸과 동역하는 향기가 가득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진실로 알게 되면 조만간 그 사람은 우리가 언급한 세 가지 증거를 나타낼 보일 것이다. 첫째, 그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고, 둘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말할 수 있으며, 셋째, 그 사람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자신이 권위가 되는지, 즉 몸 안에서 머리의 권위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도 분명히 알게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몸을 아는 증거이다. (*생명의 체형(학)*, 215-217, 230-239쪽)